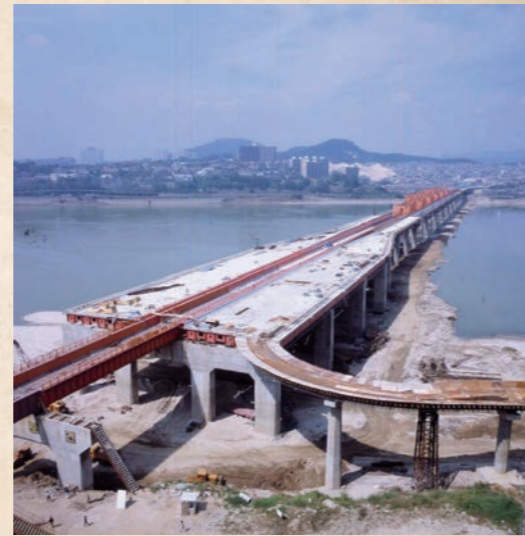


# 그·날·의·도·로

1985년 2월 2일

## 그날, 동호대교가 개통되었다



동호대교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수동과 강남구 압구정동을 연결하는 한강의 교량으로 성수대교와 한남대교 사이에 있다. 1980년 6월 착공 당시 명칭은 금호대교였으나 개통하기 전인 1984년 11월 다리 북단의 옥수동 한강변 지역의 옛 지명인 동호(도성의 동쪽에 있는 물가)를 따서 동호대교로 개명하였으며, 1985년 2월 2일 개통하게 되었다.

동호대교는 중앙에 설치된 철도교를 중심으로 좌우에 2차선 도로가 위치한 복합교량 방식으로 수도권 전철 3호선의 옥수역과 압구정역을 연결하며 동작대교와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다. 특히, 수도권 전철 3호선 옥수역부터 압구정역 방면으로 육교가 있는 쪽까지 이어지는 너비 11m의 철도교와 양측에 너비 10.5m의 편도 2차선 도로가 있다. 동호대교의 상류측 1.3km 지점에는 왕복 8차로의 성수대교, 3.3km 지점에는 6차로 영동대교가 건설되어 있고, 하류측으로 1.2km 지점에 12차로 한남대교가 있다. 이들 도로는 강북측으로 강변

북로, 강남측으로 올림픽대로와 상호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교량으로는 강남지역의 개발에 따른 이동 교통량 부하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을 고려할 때, 경부고속도로, 영동 등지에서 발생하는 교통량이 도심으로 직통할 수 있도록 하는 동호대교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 직진만으로도 신당동, 장충동, 종로, 혜화동으로 바로 이어진다.

동호대교는 근처의 교량들에 비해 차로 수가 적어 중간선보다는 한남대교 등의 보조 역할을 수행해 주는 보조 간선에 가깝다. 참고로 동호대교를 이용하면 강변북로에서 어느 방향이라도 동호대교를 타거나 강변북로 도로로 갈아탈 수는 없다.



(출처 및 참고자료: ©서울특별시,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사진아카이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